

오피니언

光日春秋

전순옥



지난 5월 11일은 저출산 시대에 진정한 국내 입양문화 정책이 활성화되어, 더 이상 베이비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도 씻고 우리아이는 우리 손으로 키울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재확인시키는 날이었다. 지금도 하루 7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한 달에 210명, 일년에 2천520명꼴로 아이들이 고국을 떠나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로 한국사회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녀를 출산해도 양육하고 교육할 할 능력이 되지 않아 아이를 해외로 보내야만 하는 비극과 모순이 반복 되고 있다.

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정을 심는 모임'이라는 작은 모임을 구성하였고, 나는 그 모임의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입양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모임은 더 이상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을 방지

'입양의 날'과 저출산의 모순

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우리 손으로'라는 캐치프레이드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 당시 아이를 입양시켜야 하는 아이들의 친모는 (다수가) 비혼여성으로,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기를 원하지만 개인적, 경제적 사정, 가족문제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결국 아이를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조건이 어려운 친모들에게 자신의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와 엄마의 품에서 양육될 수 있어야 하지만, 당시 비혼모들이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어떤 것 보다 어려운 것은 경제적 문제였다. 경제적인 문제만 뒷받침되면 친모 스스로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도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기 원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아예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입양을 원하지만 입양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양육하는데 들

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경제적 부담이 입양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보이는 국내입양활성화 운동이 탄력을 받아 입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정부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영국은 유일하게 유럽이 모두 겪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다. 이유는 영국 정부의 정책은 한부모 가정이나 비혼모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여성들 어느 누구든 아이의 양육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로 보고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다.

영국정부의 지원은 1998년까지만 해도 비혼모와 한부모 가정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지원되었다. 지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린이 양육비 전체, 의료비 교육비 완전무료, 자녀양육을 하는 어머니의 양육수당지급, 민영주택 영수위 자격 등이다.

이처럼 완전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비혼모가 혼자서 7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생활 할 수 있었다. 내가 다니던 교회에 주일이면 대형 고급가족승용차에 여러 명의 자녀를 태우고 당당히 교회에 나오는 여성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비혼모나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사회가 용납할뿐더러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입양의 날이 계기가 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면 베이비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입양아이 가정에 월 10만원 지원 운운하는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좀 더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침여성노동복지대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5·18 26주년 맞는 光州의 소회와 다짐

오늘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빛나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26년을 맞는 날이다. 유족과 시민들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금남로에선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국내외의 많은 손님들이 광주의 영령들에게 한송이 국화꽃을 바친다. 코흘리개가 청년이 되는 세월동안 광주는 소외와 오해와 편견과 무관심에 맞서 무던히도 싸워왔으며 그결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토대가 됐으며 오늘날 자유가 꽃핀 세상에서 숨엄하게 기념식을 치르게 된 것이다.

혹자는 도청앞 발표평명자가 규명되지 않았고 암매장된 사망자의 수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미완의 과제'를 말하지만 이는 실은 중요치 않다. 그때 이후 광주를 살았던 우리 시민 모두는 부당하게 약탈된 국가권력이 국민의 군대로 하여금 시민을 학살하게 한 이 사건의 본질을 잘 알고 있다.

26주년 5·18을 맞는 우리가 가슴에 품는 바는 찬연한 광주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오늘날 진보와 수구로 갈려 사사건건 대립하게 된데 대한 걱정이다.

피로 지쳐낸 민주주의가 우리끼리의 증오로 이어진다면 이는 5월 영령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광주는 자유와 평화와 인권의 발원지이지 결코 폭력혁명의 산실일 수 없다.

우리는 한편 광주가 80년대의 고립과 피해의식을 떨치고 아시아 각국에 민주주의의 등대가 되고있는 사실을 가슴뿌듯이 여긴다. 광주인권상을 이미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향한 광주의 의지를 세계에 떨친지 오래다. 부당한 억압에 시민적 자각으로 분연히 맞서는 용기는 광주가 아시아와 제3세계국가에 던지는 찬연한 빛이다.

다시 한번 5월 영령들의 송고한 희생을 기리며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할 번영된 국가건설을 다짐할 뿐이다.

FTA 다원화,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6일 타결됐다. 아세안과의 FTA 체결은 5억명이 넘는 거대 경제권과 처음으로 자유무역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품 중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인정키로 한 것은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로 이제 FTA 다원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한국은 이미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협정을 체결했으며 유럽연합(EU)과는 예비 논의에 합의했다. 당장 다음 달 초부터 미국과의 본 협상이 시작된다. 무역장벽을 허무는 FTA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부존자원 없이 무역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우리로서는 FTA를 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다.

FTA는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양

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은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국내제도 개혁과 사회 안전망 구축과 같은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할 경우 양극화 심화와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업이나 서비스업에 치명적 타격이 우려된다. 한·미 FTA의 장밋빛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제 FTA가 우리에게 미칠 득실을 면밀히 따지고 대비책을 세울때다. 한·미 FTA를 제 2의 을사늑약이나, 조약이 체결되면 미국의 51번째 주로 예측된다. 반대로 내년 6월이라는 미국측 시한에 쫓겨 졸속 체결을 서둘러서도 안된다. 활발한 찬반 토론과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종남



세계 '이민(移民)의 날'을 맞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5천명의 혼혈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지난 해 한해에 결혼 한 100쌍 중 13.6명으로 그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혼혈인(混血人)이 최고 2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자적, 무책임한 약덕 상흔이며, 부모덕 한 알선 업자들의 난립이다. 여차피 지방정부나, 국가가 모르는 채하고 방관 할 수 없는 사회문제요,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모든 종교와 사회단체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이 다문화시대, 최근 여수시·해남·화순 등지에서, 농어촌 농촌각들의 딱한 현실 문제를 염려하고, 그들의 결혼문제와 사후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기관장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감사로움을 느낀다. 다른 각 지역에서도 그런 뜻있는 분들이 차츰 많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이제부터라도, 그들 국제 결혼

다인종 다문화 시대에, 우리는...

단순 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혼혈아(混血兒)의 9.8%가 초등학교 때, 17.5%가 중학교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각각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국가사회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 책임져 주어야 할, 정책수립과 배려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과 지도자들의 무성의가 아쉽기만 하다. 우리 사회가 어차피 피해 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다름 아닌 적혼기(適婚期)를 훨씬 넘기고도,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고 미혼으로 늙어 가는 우리의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가 그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농촌 총각 35.7%인 2천885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전체 결혼의 3명중 한명이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순전히 돈벌이만을 위한 무

혼어녀자들과 혼혈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인종(多人種), 다문화(多文化)시대의 문턱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순혈주의(純血主義)는 이 땅에도 이미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세상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이주(移住)해와서 삶의 '동지'를 틀고,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 수박에 없는, 그들, 이민자(移民者)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며, 이웃으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익혀야만 할 때이다. 이미 그들은 이 땅에 삶의 닳을 내렸고, 우리 국가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건전한 시민(市民)으로, 인격체(人格體)로 받아들여, 한 형제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 할 뿐이다. 그 길이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교수·신부>

응급상황 아니면 주사처방 자체해야

주사제 처방률이 공개됐다. 대학병원의 경우 주사제 처방률이 평균이 3.59%지만 종합병원 9.96%, 병원 26.27%, 의원 27.9%로 규모가 작을수록 주사제 처방률이 높았다. 주사제는 먹는 약에 비해 체내 흡수가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 금성소크와 혈관염 등 부작용 위험이 커 약을 먹을 수 없거나 응급한 경우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는 1~5%

를 적정 주사제 처방률로 보고 있다. 환자들의 주사효과에 대한 과도한 믿음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를 줄이는 것은 전적으로 의사의 책임이다. 의사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사 처방을 하지 말아야 한다. 환자들도 주사제 처방이 효과가 빠를 것으로 기대하나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미숙·광주시 서구 금호동

기고

정영채



관매도는 진도군에 속한 작은 낙도이다. 겨우 2백호 남짓 되는 섬이 송림이 울창하고 명사가 십리같이 지평선을 이루고 있다. 담이 정든 나그네처럼 보름에 한번씩 폭폭 들리면 정히 혼자 보기 아까운 한 폭 그림이다. 밤낮 우울함에 시달리다 나뭇배에 몸을 싣고 이 섬을 찾는다. 혼자 지지도록 백사를 거닐다 피로하면 학교에 들른다. 송림으로 둘러싸인 이 학교는 산사와 같은 느낌을 준다. 오루 텃 빈 교실에서 간간히 풍금소

들자니 한없이 끌려 들어가는 선율이 다.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친다. "수선화." 하고 빙그레 웃는다. 시제(詩題)도 필직한 꽃 이름이다. 조용한 분위기에 착 어울리는 기쁨이 문학소녀였다. 나는 아직 음향이 끝나고 도전에 일어섰다. 소녀는 이번엔 "고독한 밤을 하나 더 들고 가세요" 하고 만류한다. 나는 다시 앉았다. 역시 고독한 호소였다. 나는 교문을 나와 모래 밭길을 무심코 걸었다. 주막(酒幕)에 노파가 짜야주

수선화

리가 흘러나온다. 참으로 섬마을의 조용한 멜로디이다. 나비 리본을 단 백합같이 아름다운 소녀가 의젓한 선생님으로 종일 애들과 뛰어놀다 지치는 것이다. 늦도록 안가면 집에서 걱정하지 않고 나고 몰랐더니 선생님도 "전 집이 나주예요" 하고 빙그레 웃는다. 이름은 오영애였다. 외갓집에 얹혀 있었다. 무슨 취미로 이런 고도(孤島)에까지 왔느냐고 물었더니 "취미로 직업을 얻습니까? 첫째야 생활을 위해서지만". 재차 물었더니 "외롭고 또 바다가 좋아서요." 그만 나에게 흐린 있는 뒷잡을 수 없는 감상이다. 작고 풍금을 울리니 "무슨 곡을 치나요?" 선생님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알아 맞추세요." 정말 조용히 눈을 감고

는 약주는 입술에 짙 붙는 오렌지 미각. 익끼스런 유기의 술잔은 탐승객의 뜨거운 입김을 얼마나 식혔나. 암간(岩間)의 노송(老松)아 고전을 말하다. 고운 섬 바다는 달 불매(觀梅島)의 밤절경에 취하고 약주에 취해 누누니 해안을 때리는 파도소리 절절, 그 소리에 처여 할 깨지는 소리. 이 한 밤 잠 못 이루어 백아 독보하여 푼다. 날이 새어 나는 나뭇배에 몸을 싣고 돌아와서도 톱툰 바람이 흔들리는 수선같이 애처로운 수선화가 귀에 익도록 울려왔다. 그 후 못건디게 벗이 아쉽고 사무치면 이 섬을 찾는다. 그래서 정초(靜稍)하게 울리는 수선화에 잠겨 내 무료한 섬 생활을 달낸다. <수필가·신안군 흑산면>

초보운전 위협하는 경적소리도 '난폭운전'

얼마전 중고 트럭을 한 대 샀다. 이제 막 운전면허증을 딴 초보운전자로서 요즘 길에서 받는 설움이 장난 아니다. 트럭 및 유리창과 짐 바퀴 뒤쪽에 '초보운전'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다니는데도,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다 싶으면 여지없이 경적 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예 옆으로 지나가면서 샷대질을 하는가 하면 육설도 내뿜는 운전자도 있다. 나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초보운전' 문구

를 붙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나와 같은 초보운전자 인 후배에게는 아예 '초보운전' 표시를 떼고 다니라고 권했다. 가장 답답한 것은 때를 안가리고 울려대는 경적소리다. 당황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경적만 안울려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독촉하던 경적을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이다. <김집숙·광주시 북구 북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국군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의 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4번째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때, 광주의 젊은 예술가들은 아름다운 예술을 버리고 '모든 그림은 포스터로, 모든 시는 슬로건으로'를 표어로 내걸고 진실을 고발하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일본 교토 시민문화연대가 '광주자유 미술인회'를 초청해 교토시립미술관 전시장에서 개최한 '광주의 기억'으로부터 돌아와서 '광주의 평화'라는 기획전에서 행한 미술가 홍성담씨의 축하 일부다. 홍성담씨는 한국 민중미술시대를 활짝 열

행동가로서, 리얼리즘 예술가로서 성실히 실천해왔던 홍씨는 90년 국제 연네 스티븐부로부터 예술가 3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씨가 지난해 광주 남동성당으로부터 제작의뢰를 받고 1년여 동안 제작한 '14처' 작품이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다. '5·18 당시 고통을 받은 민중의 가슴에도 예수의 사랑이 존재했다'

5·18 聖書



는 작가의 메시지가 담긴 이 작품을 성당 측이 "전통적인 성화의 이미지에 맞지 않아 성당 내부에 전시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홍씨는 이에 대해 "14처"를 성당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경우 불태워 없애겠다"고 어쨌든 중신임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1979년 '광주자유미술인회' 조직에 참여했고,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선진요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89년 평양축전에 '민중민중 미술인 전국연합'이 공동 제작한 '민중해방운동사' 사진을 북한에 보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했다. 사랑과 해방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 廣州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500-222-8111(지사·지국)독독신침·배달안내 2200-500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222-4918 (FA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대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